

광주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 선정

연말까지 4억 원 투입...계림초교 어린이 통학로 디자인 개선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계림초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디자인개선사업으로 서류심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비 등 총 4억원을 투입해 계림초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디자인을 개선하게 된다.

계림초등학교는 1940년대 개교한 후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이루어져 현재 도시재개발 지역으로 사업 대상지역 학군 내 인구 약 3만여 명의 주거지역으로 학생 수가 총 680여 명에 달하는 등 광주시 내 중위

초과밀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구도심 택지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교통량과 인구의 증가가 급속히 이뤄져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절실한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광주시와 동구,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은 도시재개발로 발생

하는 급격한 통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통학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어린이가 탈 없이 잘 놀고 잘 자라는 공간' 만들기는 주제로 계림초등학교, 전교생, 주민 협의체와 의견을 수렴해 통학로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개소 파악, 등하교 현황과 통학로 분석, 통학로 안전 개선 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사업은 연말까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온화 가이드를 적용한 보행환경 조성하고 학교 정문, 후문, 학교 앞 교차로 등 통학로 주변 시각 단절구간을 중심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 결절지 개선, 교통약자 위한 단차제거 등 시설개선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앞서 광주시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국비 공모사업으로 참여해 지난 2018년 '길찾기 쉬운 금남지하상가 만들기'(4억원),

2021년 '안전한 대촌라온길 조성'(2억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2년 '행복한 계림초등학교 통학로 조성'(2억원) 사업 선정으로 총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로 등하교할 수 있는 공간조성 사업이 확대되도록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기자

기아, 메타버스 니로 EV 체험 공간 공개

'기아 에코 빌리지'...가상 체험 테마파크 구축

기아가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Roblox)'에 니로 EV 체험 공간 '기아 에코 빌리지(Kia Eco-Village)'를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로블록스는 글로벌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북미와 유럽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니로 EV 체험공간이 펼쳐지는 가상세계인 기아 에코 빌리지는 인간과 동물이 교감해 친환경 에너지를 충전하는 '친환경 라이프'를 주제로 마을, 해변, 에너지 센터, 캠핑장 등 총 4개의 가상공간으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기아 NFT 센터에서 기아 EV NFT 작품을 관람하고 ▲달리버리 게임 ▲발리볼 게임 ▲스피드 게임 ▲댄스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니로 EV의 상품성을 체험할 수 있다.

달리버리 게임은 참가자에게 주어졌던 친환경 미션에 맞춰 니로 EV를 직접 운전해 정해진 장소에 물건을 배달하는 게임으로 기아 에코 빌리지 곳곳을 탐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변에서 진행되는 발리볼 게임

은 정해진 시간 내에 니로 EV의 트렁크 및 프런트 트렁크에 공을 넣는 게임으로 니로 EV의 공간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에너지 센터에서 즐길 수 있는 스피드 게임은 니로 EV를 타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주하고 코인을 획득하는 레이싱 게임으로 니로 EV의 401km 항속거리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캠핑장 중앙 광장에서 진행되는 댄스 게임은 음악에 따라 나타나는 화살표를 기억해 정확하게 입력할 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댄스 게임으로 니로 EV와 V2L로 연결돼 있는 오디오 위에서 펼쳐진다.

특히 기아는 참가자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코인으로 동물, 기계, 정령 등 니로 EV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펫, 나만의 캠핑장을 꾸밀 수 있는 캠핑 용품 등을 구매해 기아 에코 빌리지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 에코 빌리지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니로 EV의 상품성을 재밌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신차 체험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김영록 지사, 홍남순 변호사 '민주' 정신 기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오전 화순 도곡면에서 열린 (故) 홍남순 변호사 생가복원 기념행사에 참석해 그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정신과 삶을 기렸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유족인 홍기훈 전 국회의원, 박석무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구충곤 화순군수, 정대철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지난 2019년부터 생가 복원사업 추진, 2020년 사업이 완공됐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날에야 열렸다. /전남도 제공

건강한 먹거리를 사랑하는
곡성 특산품

섬진강 맑은 물 골짜기의 산들바람자연속 가족마을 곡성에서 생산된 **딸기, 사과, 백세미, 토란** 등 친환경 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360-7183

곡성 토란

곡성 딸기

곡성 멜론

누렁지향 가득한
백세미